



경계감 높아졌으나, 실망하기에는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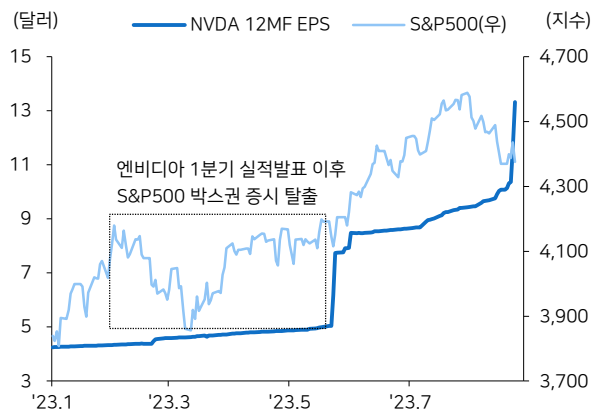
8월 24일 S&P500은 전일대비 1.4% 하락 마감. 잭슨홀 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연준위원의 매파적 인터뷰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 완화를 위해 고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해야 하며, 금리 정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언급. 미국채 10년 금리는 4.24%로 전일대비 4bp 상승한 데 그친 반면, 통화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 금리는 7bp 상승(5.02%)

엔비디아 실적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 되어왔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번 실적 발표가 지난 분기 발표만큼 시장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같음. 1분기 실적발표 이후 엔비디아의 12MF EPS 추정치는 5.04달러에서 8.5달러까지 68% 상승. 2분기 실적발표 이후 12MF EPS는 10.4달러에서 27.6% 상승한 13.3달러까지 상승 중

오늘 밤 한국시간 기준 11시 5분 잭슨홀 회의 파월의장 연설을 앞두고 콜린스 총재의 발언이 작년 경험에서 비롯된 시장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풀이됨. 작년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의장 발언 이후 S&P500은 전일대비 3.4%나 하락했던 경험 있음. 이번에는 전일 금리 하락으로 이미 증시가 먼저 상승했고, 여기에 작년 경험이 일단 잭슨홀 회의는 피하자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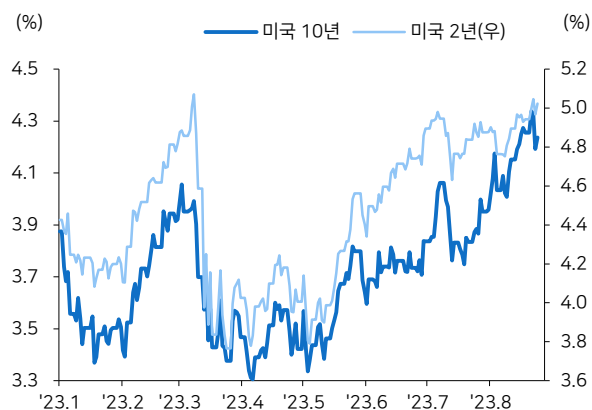
그런데 작년 7월 FOMC 회의 전후 분위기를 돌이켜보면, 50bp, 75bp씩 연속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던 국면이었음. 실질적인 물가 압력과 인플레이 기대를 동시에 컨트롤해야 했던 시기였는데, 7월 FOMC에서 통화정책 속도조절 가능성을 언급함. 이후 증시는 8월까지 반등했으나, 인플레이 기대가 통제되지 않았음. 연준 입장에서 실수를 빨리 바로잡는 것이 필요했고, 유일하게 대중에게 공개되는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매파적 발언. 당시 증시 낙폭이 컸던 이유는 직전 흐름과 정반대의 정책 스탠스가 확인되었기 때문. 오늘 연설에서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 나온다면, 고조된 경계감을 되돌릴 확률이 오히려 높아진 상황이라는 생각

그림1 엔비디아 12MF EPS와 S&P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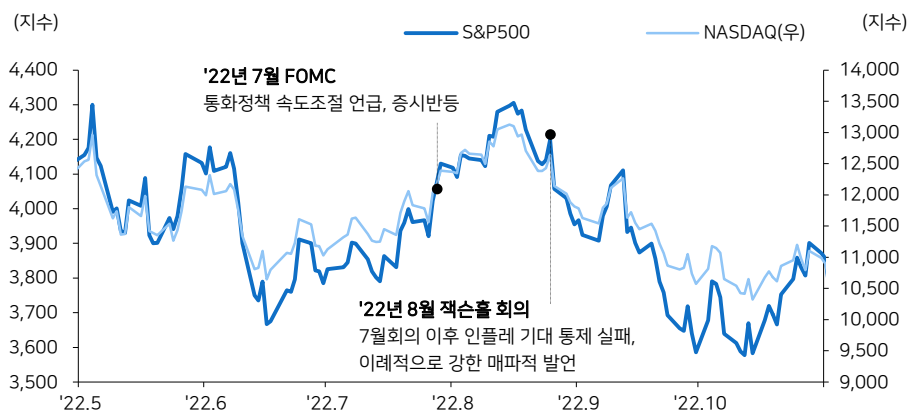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채 금리: 전일 단기채 > 장기채 금리 상승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작년 7월 FOMC 전후 미국 증시 흐름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